

축 사

“천 년의 세월이 흐른 뒤에 해와 달과 함께 나란히 걸리고 귀신과 오묘함을 다투도록 해야 합니다”라고 대각국사 의천(義天)스님이 대장경 조성에 대해 말씀하신 것이 새삼 가슴 뭉클하게 느껴지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2011년, 내년이 바로 초조대장경 판각 천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 역사적인 해를 맞이하여 국운을 일으키고 민족을 통합하는 일이야말로 참으로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역대 조사와 선사님들의 덕화에도 잠시 해태심(懈怠心)으로 인해 천년의 세월이 무상하게 되었습니다. 슬한 전란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기억 속에 멀어지고 잊혀졌던 초조대장경, 그 지혜도 같이 묻혀있었습니다.

그러나 대장경 속에 담긴 지혜는 광명과도 같아서 다시 우리 곁으로 다가오고 비치고 있습니다. 그러한 시작은 고려대장경연구소가 묵묵히 준비하고, 일본 남선사와 화원대학 그리고 국내 소장처가 합심하여 노력한 결과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여러 교수님과 연구원들이 조사하고 연구한 내용이 오늘, 이곳에서 갖는 ‘한·일 공동 초조대장경 복원간행위원회 발족식’을 필두로 이 땅에 다시 구현된다는 것은 제불보살님들의 가피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일본 남선사 종무총장님과 미국의 랭카스터 교수님 등 세계적인 석학들이 참석한 것으로 보아 오늘 발족식은 고려대장경 천년의 지혜를 새로운 천년으로 이어주고자 했던 고려인들의 꿈이 이루어진 것과 다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구광역시와 동화사가 초조대장경 복원사업에 공동 협력한 것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좀 더 꼼꼼하고 세밀하게 준비하여 고려대장경 천년의 해를 뜻 깊게 맞이하고, 나아가 우리 조상들이 전해 주고자 했던 대장경 천년의 진리를 세계만방으로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이 자리를 빌려 초조대장경 전산화와 복원에 수고를 아끼지 않은 고려대장경연구소 이사장 종립스님 등과 오늘 함께 자리해준 문화재청장님, 이어령 선생님, 성문스님 등 일본과 미국에서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와 격려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0(초조999)년 6월 7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 승